

# 5개 출판단체, 학술도서 출판중단 선언 · 외



지난 11월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판 관련 5개 단체장들이 불법 복사와 표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법문사, 박영사 등 대학교재 및 학술서적 전문 출판사들로 구성된 한국학술도서출판협의회를 비롯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 출판 관련 5개 단체장들은 지난 11월 23일 출판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불법 복사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저술과 출판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불법 복사와 표절이 일상화하는 한 출판사들은 존폐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불법복사 단속원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학 당국의 자정 노력과 사업체의 저작권법 준수 노력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판협회 나춘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복사전송권 관리센터가 출범해 저작권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였음에도 대학가 복사업체들의 불법복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사법부의 대응도 별금형에 그치는 등 미흡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제8회 독서대상 수상자 발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지난

11월 16일 제8회 독서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독서 지도교사 부문과 학생 부문으로 나뉜 이 상은 지도교사 부문에 대통령상(1명), 국무총리상(2명), 교육부장관상(13명), 해당 시·도 교육감상(16명), 특별상(13명), 학생부문에 문화관광부장관상(15명), 해당 시·도 교육감상(15명), 특별상(45명) 등 총 120명에게 주어지며, 상금으로 총 1억원을 수여한다.

영예의 수상자는 독서 지도교사 부문에 ▲대통령상—전북 김재 만경여자고등학교 김영자 교사 ▲국무총리상—대구 동부여자중학교 김민자 교사, 경남 거제종합고등학교 황주호 교사 ▲교육부장관상—서강초등학교 장은주 교사, 학익고등학교 김배홍 교사 외.

학생 부문에 ▲문화부장관상—효제초등학교 5학년 서현배, 영도초등학교 4학년 박세영, 광문고등학교 2학년 정지태 외. ▲교육감상—진명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선정, 동명초등학교 4학년 김재현 외. ▲추진위원장상—진주고등학교 2학년 김갑찬, 화정고등학교 1학년 최현진 외 등이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8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 734-8402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워크숍 열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용)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용형태별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둘러싼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저작권 전문가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권리와 이용자의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최됐

며, 김동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업무부계장, 박기태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사무차장, 배영구 노래문화협회전국연합회 사무총장 등 관련 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해 해당 사건의 법적 쟁점을 기초로 각 이용형태별 음악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 669-9981

## 한국출판금고, 융자한도액 인상 및 융자이자율 인하

(재)한국출판금고(이사장 김낙준)는 일반출판용자와 기획출판용자의 융자한도액을 현행 각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해 융자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융자이자율을 2002년 1월 1일부터 현행 월 0.6%(연 7.2%)에서 월 0.5%(연 6.0%)로 인하하기로 했다. | 732-1434

## 국립중앙도서관, ISBN 사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해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센터장 오용운)는 도서관 납본자료를 대상으로 한 ISBN 사용실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해 2월과 7월에 실시한 실태조사를 종합한 결과 평균 18% 내외의 오류율이 나타났다. 오용내역을 보면, 다른 출판사의 발행자 번호를 잘못 사용하거나, 두 권의 도서에 동일한 ISBN번호를 주기도 하고, 이에 바코드가 판독불량인 경우 등 제도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1년부터 매주 2회(화·목 오후 3시) ISBN 사용법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출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차원의 ISBN 사용자 설명회를 매년(올해는 4월) 개최해왔다. 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ISBN체크기호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측은 “ISBN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판물에 도서번호를 직접 표기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먼저 ISBN의 목적과 중요성을 인식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590-0628 | www.nl.go.kr

## 윤청광 이사장, 차기 이사장으로 재선출돼

윤청광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이 11월 13일 한국출판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임기 3년의 차기 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 윤 이사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출판금고 이사,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 등 출판계 요직을 맡고 있다. 한편, <고승열전> 시리즈 등 26권의 저작을 펴낸 작가로서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법보신문> 논설위원 등 방송계·불교계에서도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 737-7106

### 출판기자단 초청 세미나 열려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김용술)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출판기자단 초청 세미나'가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귀포 칼호텔에서 열렸다.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림대 유재천 교수(언론공학부)가 <IT산업 발전에 따른 출판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란 제목으로 기조특강하고, 동의대 이창열 교수(컴퓨터공학과)가 <세계 출판유통 기술동향>을, 노정용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출판 유통현대화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재천 교수는 문화산업의 육성은 산업논리·기술논리로만 달성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하고, 21세기 문화산업의 성패는 창의력과 풍부한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콘텐츠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도서유통을 위한 새로운 목록체계인 ONIX(ON-

line Information eXchange)를 소개한 이창열 교수는 ONIX가 디지털 콘텐츠와 인쇄도서를 총괄하는 유통체계로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메타데이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노정용 기자는 고비용 저효율의 출판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레고 구조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10회 'MBC 창작동화 대상' 공모

문화방송은 금성출판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제10회 'MBC 창작동화 대상'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장편 2백자 원고지 4백장 내외(줄거리 요약 첨부), 단편 2백자 원고지 40장 내외며, 주제 및 자격 제한은 없다. 총 고료 5천만원의 이번 공모는 장편 당선작 1편에 2천5백만원, 가작 1편에 1천2백만원, 단편 당선작 1편에 7백만원, 가작 2편에 각 3백만원의 고료를 지급하며, 원고마감은 2002년 2월 20일이다.

| 789-3788 | www.imbc.com

### 리브로 아티누스, 온라인 서비스 개시

리브로(대표 김경수 외)는 지난 12월 1일 국내 최초로 인터넷 예술서점 '리브로 아티누스'(www.arti-

nus.com)를 열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예술서적을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 아티누스는 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책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 740-6080 | www.libro.co.kr

### 교보문고,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실시

교보문고(대표 김년태) 광화문점이 고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개점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영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보문고는 지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일 11시간 영업해왔다.

| 397-3431 | www.kyobobook.co.kr

### 바로잡습니다

《출판저널》제313호(11월 20일자)에 실린 부산외대 이태리어과 박상진 교수의 원고(『'무한한 기호과정'의 미로에서 길찾기』, 14쪽)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네번째 단락에서 《장미의 이름》을 선조성과 비선조성으로 설명하는 대목을 원문대로 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미의 이름》은 곧 미로이며 도서관이다. 독자는 책을 읽으면서 미로와도 같은 도서관을 헤매는 꼴이 된다. 이 미로는 연역적인 고전적 미로와 귀납적인 매너리즘적 미로가 아니라, 가추에 해당하는 들뢰즈식의 미로다. 연역은 보편에서 특수로, 귀납은 특수에서 보편으로 추리하면서 논리의 순서를 따르지만, 가추는 비선조적이다. 가추는 자유로운 상상 운동이며 직관적이고 탈근대적인 사고의 패턴이다. 물론 《장미의 이름》은 추리 소설의 성격, 즉 끝에 가서야 범죄자가 가려지는 구조를 하고 있다. 시간적, 논리적, 선조적 진행 속에서 작가와 독자가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미의 이름》은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등장인물에 대한 판단을 거듭 혼란스럽게 만드는 비선조적인 기호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중간 부분에서 “자본주의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추적 하듯이” 다음에 쉼표(,)가 빠져 있어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교수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출판저널》제312호(11월 5일자) 58쪽에 실린 '책 갈피산책'에서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좋은 책과 나쁜 책'은 '고등학생인 양 쓴' 어른의 글이라 주의환기라는 진의가 퇴색한다”는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좋은 책과 나쁜 책'이 고등학생이 쓴 글이므로 잘못됐음을 밝힙니다.

한국서련 · 출판협회 공동 집계

베스트셀러 종합순위(2001.11.18~11.24)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오페라의 유령	가스통 르루	문학세계사	소설
2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3	책 웰치 · 끝없는 도전과 용기	책 웰치	청림출판	비소설
4	등대지기	조창인	밝은세상	소설
5	The Blue Day Book	브레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비소설
6	삼도 1	최인호	여백미디어	소설
7	괘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창작과비평사	소설
8	협상의 법칙	허브 코헨	청년정신	비소설
9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문예출판사	소설
10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한비아	푸른숲	비소설
11	한강 1	조정래	해냄	소설
12	너 그거 아니?	디비딕 닷컴 네티즌	문학세계사	비소설
13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웅진닷컴	비소설
14	돈버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이상건	더난출판사	비소설
15	바이올렛	신경숙	문학동네	소설
16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비소설
17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토머스 불핀치	가나출판사	비소설
18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소설
19	거울	원성	이레	비소설
20	칼의 노래	김 훈	생각의나무	소설